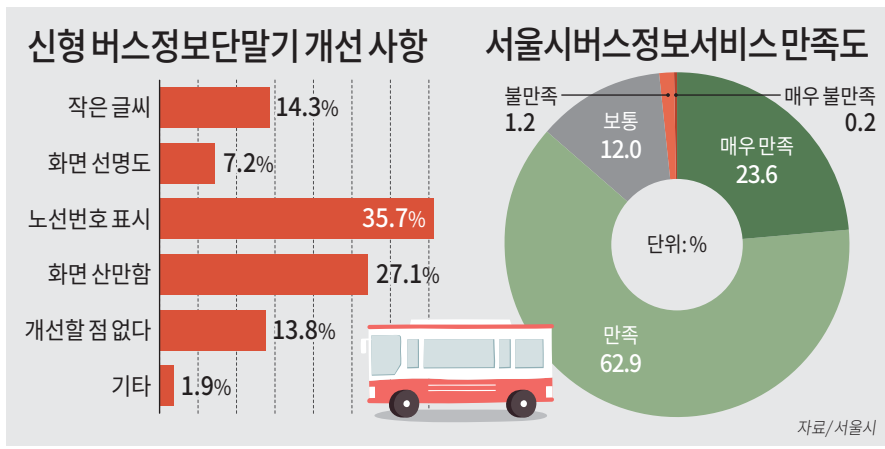
시민 87% 버스정보서비스 '만족'… "잦은 고장 아쉬워"

서울시, 2975명 대상 BIS 설문
매우만족 24%, 만족 63% 답해
78% "버스정류장 BIT 자주 봐"
최고 불편사항은 '잦은 고장'



서울시가 버스에 GPS 수신기와 무선통신 장치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서울시버스정보서비스'(BIS)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BIS를 확인하는 주 경로 중 하나인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잦은 고장'을 꼽았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297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버스정보안내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5%는 서울시 버스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한다(매우 만족 23.6%·만족 62.9%)고 답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GPS 위성으로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출해 버스위치정보를 서울시교통정보서비스홈페이지(TOPIS)센터로 전송, 운수회사와 시민에게 버스위치·운행상태·배차간격·도착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서울시버스정보서비스(BIS)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네이버·다음 카카오 같은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48.6%),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31.2%)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버스 이용시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자주 본다'고 답했다. '가끔 본다'는 19.7%, '보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2.2%였다.

평소 BIT를 자주 안 본다는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서'(45.7%), '거리가 멀어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31.1%), '자주 고장이 나서'(10.4%), '도착 시간이 맞지 않아서'(7.1%)를 그 이유로 지목했다.

시가 시민들에게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BIT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을 물었더니 ▲잦은 고장(25.5%) ▲화면구성 및 시인성(19.1%) ▲부정확한 도착 정보(10.6%) ▲설치 위치(7.9%) ▲안내 방송(2.2%)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서울시의 연도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시와 민간이 관내 설치한 BIT 대수는 총 5654대다. 중복으로 설치된 61대를 제외하면, 전체 서울시내 정류소 총 6576개소 대비 5593곳에 구축돼 BIT 보급률은 85.05%에 이른다. BIT는 버스 도착 정보, 예상 소요시간, 혼잡도 등의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새롭게 개선된 신형 BIT를 통해 미세먼지, 날씨정보,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안내 정보도 송출하고 있다.

시민들이 신형 BIT에서 가장 만족하는 사항은 '곧 도착 버스노선 우선표시'(62%)였다. 이어 '곧 도착 버스노선 다음 도착시간 안내'(21%), '다른 버스의 도착시간 및 노선 표시'(6.3%), '차내 혼잡도'(4.2%), '저상버스 안내'(2.4%), '기타'(2.3%), '현재시간'(1%), '날씨 및 미세먼지 안내'(0.7%) 순이었다.

반면 응답자들은 신형 BIT의 개선사항으로 '노선이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노선번호를 찾기 어렵다'(35.7%), '저상버스·날씨·현재시간·미세먼지 등 많은 정보가 표출돼 화면이 산만해 보인다'(27.1%), '화면 크기가 줄어 글자가 작아졌다'(14.3%), '화면이 어둡고 선명도가 좋지 않다'(7.2%)를 들었다. '개선할 점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13.8%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코로나 위기 예술인에 100만원 자금 지원

서울시, 130억 투입 1.3만명 대상
24일부터 접수, 내달 말 지급 목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총 13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로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 1만3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이메일)과 현장 접수를 병행, 2월 말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서울시 거주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다. 공고일 기준으로 증명유효기간이 지원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라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방역지침 적용으로 공연과 축제가 줄면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생활안정자금 지급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예술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공연 및 전시분야 사업체의 매출 피해는 4244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빠른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심사해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는 당부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경험이 중요시되는 문화예술 직업군 특성을 고려할 때 예술활동 중단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예술 생태계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서울시, 3월 자치단체 최초 실시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 7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 데 이어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50곳에 신규 채용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3월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 등)과 정부지원어린이집을 포함 총 50개소다. 각 어린이집에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보육교사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시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에 총 13억원을 투입한다.

시의 인건비 지원으로 '만 0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든다. 시는 만 0세 반은 집중 돌봄이 필요하고, 만 3세 반은 인원수가 많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농지법 개정 '농지대장 현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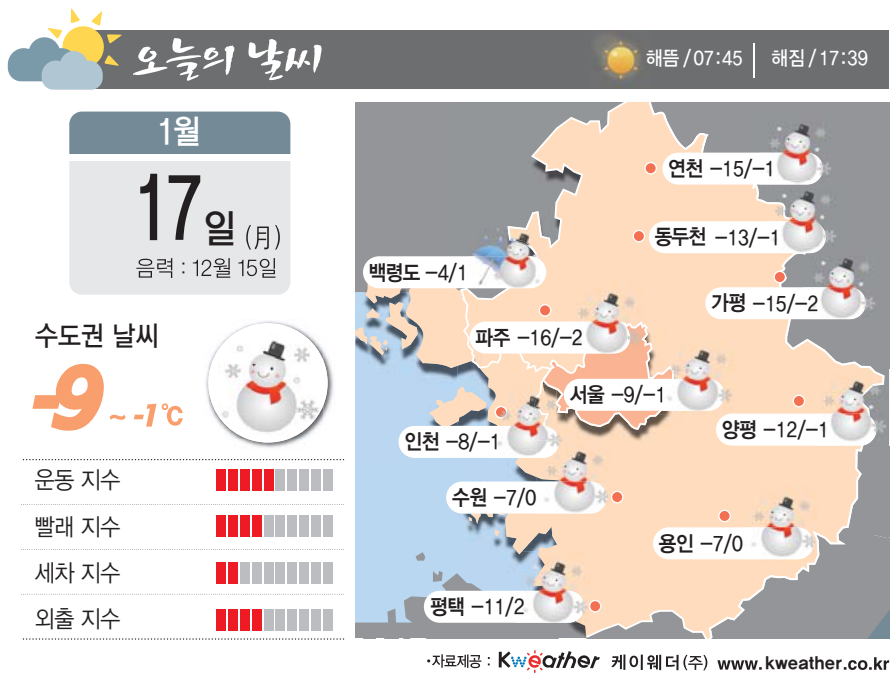
서울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는 전국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 파악·관리를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은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해왔다.

개정법에 의해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토지대장처럼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이전까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와 경작 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달 11일까지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그동안 1000㎡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관내 전체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농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2023년까지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통가 화산 폭발, 과학자들 "이번 세기 중 대형 화산 폭발" 경고 /사진 뉴시스
▲ '파티 게이트'에 英보수당 지지 하락…존슨 총리 최대 위기
▲ 중국 4분기 성장률 3%대 하락 전망…경기냉각 본격화
▲ 일본기상청, 쓰나미 특보 해제…엉터리 예측 '망신'

▲ 日 코로나 신규확진 2만5000명…"기존 최다 확진자 기록 깨질듯" /사진 뉴시스
▲ 인도, 하루 확진 한달새 51배↑ '유세 금지기간 연장'